

조선대 이사회, 지나친 학사개입으로 학사운영 막대한 지장 초래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인 사무처장, 일방적으로 정모교수 겸직 인사 단행 교수평의회 “김이수법인이사장의 독선과 이사진들 불법, 도 넘어섰다” 질타 교육부, 법인에 수차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지나친 학사개입으로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학교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법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차례 시정조

치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학교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이수법인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대학을 장악하기위한 꾀수에만 몰두하고 있어 차질 대학이 예전의 혼란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

해 놓고 있으며 만약 개입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즉각 이사임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학사개입을 한 대표적 사례로 법인 사무처장 임명이 손꼽힌다. 이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4일자로 경찰학과 정모교수를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법인 사무처장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모교수의 겸직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학교측은 법인의 안하무인 인사에 반발,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법인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 동의절차 미준수’로 김이수이사장등 4명에 경고, 정모교수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고 법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인에 통보했다. 법인은 교육부의 강력한 시정조치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지난 2023년 4월3일자로 ‘기각’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교육부의 감사규정 제 20

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법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법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며 학교측과 대립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수평의회 대의원은 지난 9일자로 “법인은 현 법인 사무처장의 겸직 절차를 준수해 재임용하거나 아니면 대학으로 복귀시키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법인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라”면서 법인은 위법상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합당한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안을 마련하고 김이사장은 법인 사무처장을 즉각 면직할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김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또 대학측이 5급이상 일반직 직원 승진과 교수들의 주요보직자를 임용할 경우 법인과 사전상의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있어 법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의 과도한 인사개입에 대해 “법인이 5급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인사에 대해 임용제정 전에 총장이 법인과 사전협의 후 제정하라”고 한 요구사항은 총장의 임용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들어 김이수 이사장등 4명의 이사에게 주의조치

를 내렸다. 또 법인은 조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 제10조 제2항을 멋대로 개정해서 이사장이 징계를 요구하면 총장이 예외 없이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하도록 총장의 징계 제청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서자 교육부에서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개정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인에 주의를 내렸다. 더불어 교육부는 법인이 총장의 징계제청 관련 재량권을 보장하도록 해당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법인은 이사회 정관 시행규정을 제정해서 학사개입을 시도하거나 총장의 권한을 약화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고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학사구조개편위원회에 법인 추천위원 참여요구 등 학사운영과 관련, 수십건의 공문과 발언을 통해 총장과 대학을 압박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수평의회 이모교수는 “조선대는 김이수법인이사장의 독선적 행태와 이사진들의 야합으로 불법이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를 방지하면 학교는 물론 학생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상화하도록 나서야 할것이라”고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취재팀

광주시, “역대 시장들 경험·지혜 모아 광주발전 이룬다”

역대 민선 광주광역시장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역대 민선시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8기 1주년을 기념해 광주의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역대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7기 초반인 지난 2018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

해 민선2기 고재유 시장, 3·4기 박광태 시장, 5기 강운태 시장, 7기 이용섭 시장 등이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시장들이 광주발전의 길을 닦고 개척해주시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며 “시장님들의 감각과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제14회 광

주비엔날레 ▲군공항 이전사업 등 민선8기 광주시 주요 시정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고재유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시작한 광산업이 민선 3~7기를 거쳐 꾸준히 발전했다. 당시 70여 개에 그쳤던 관련 기업이 현재 3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도 8천여 명에 달하게 됐다”며 “관련 지원법이 최근 마련된 만큼 더욱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선2기에 어렵게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이 5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며, 대책으로 공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근 쓰레기 처리방향이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후유증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박광태 전 시장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시정을 잘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강운태 전 시장은 “비엔날레를 매년 가고 있는데, 올해는 작품은 물론, 시내 곳곳에 설치된 파빌리온과 주제 등 모든 것이 잘 구성된 것 같다”며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처럼 민선8기 시정이 시민을 부드럽고 여러개 모시면서 내실은 강하게 가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세계대회 유치,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주과 기원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해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전 시장은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킨데 이어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광주의 일자리는 환히 열리게 될 것이다”며 “인공지능산업을 특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축적의 시간’을 통해 오늘의 광주가 있을 수 있었다”며 “역대 시장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기자

